

“5G로 디지털 전환가속… 혁신기술이 인류 번영 기여”

황창규 KT회장 ‘다보스포럼’ 참가

‘디지털 시대 위한 투자’ 세션 패널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리더 역할 강조 사회공헌 활동 기가스토리 등 소개

황창규 KT 회장은 “5G와 AI(인공지능)와 같은 차세대 혁신 기술이 인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리더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KT는 지난 20일부터 24일(이하 현지 시간)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2020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연례총회 ‘다보스포럼’에 황창규 회장과 5G 플랫폼개발본부장 이용규 상무 등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당면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황창규 회장은 24일 열린 ‘차세대 디지털 시대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한 세션에 패널로 참석했다. 황 회장은 세션



황창규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4일 열린 ‘차세대 디지털 시대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한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KT

에서 ▲KT 5G 적용사례(B2B Use Case) ▲ICT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황창규 회장은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3년 연속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우선 황창규 회장은 KT가 다양한 산업에서 만들어온 5G 적용사례(B2B)를 소개하며, ‘5G를 통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실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특히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을 위해 KT와 현대중공업그룹이 함께 구

축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조선소 사례를 소개했다. 또 삼성서울 병원과 손잡고, 세계 최초로 의료업무에 5G를 적용한 ‘5G 스마트 혁신 병원’ 협력 사례를 알렸다.

이 자리에서 황창규 회장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ICT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KT의 사회공헌활동인 ‘기가스토리’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기가스토리는 도서산간 지역에 네트워크

인프라와 ICT 솔루션을 제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KT의 공헌활동이다. 국내뿐 아니라 뱅글라데시, 캄보디아, UAE, 네덜란드 등에서도 기가스토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황 회장이 강조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1971년 WEF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첫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로, 주주와 종업원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가치 향상을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안토니오 네리 휴렛팩커드 최고경영자(CEO) 등 패널들과 포용적 글로벌 디지털 경제 혁신 방안, 5G와 차세대 혁신 기술을 통한 산업과 소비자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혁신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이밖에 21일 오후 국제 비즈니스위원회(IBC) 동계 미팅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IBC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100여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협의체다. 올해 동계 미팅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IBC 위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황창규 회장은 지난해 WEF 클라우스 슈밥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IBC 위원에 선정된 바 있다.

22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리세 킹고 UN 글로벌 콤팩트 대표와 만나 KT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AI·음악의 만남… ‘똑똑한’ 듣기 대세

취향·상황에 어울리는 음악 추천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음악 플랫폼에 도입하며 ‘똑똑한 음악 듣기’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SK텔레콤에 따르면 고객인사 이트팀이 지난해 하반기 이동통신 이용 고객 6천명을 대상으로 자주 이용하는 AI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스피커와 셋톱박스가 6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원서비스 이용이 16%로 2위를 차지했다.

AI 서비스를 통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기능 1위로는 ‘음악듣기’가 꼽혔다. SK텔레콤은 자사 음악 플랫폼 플로(FLO)에 ‘고객의 취향을 읽어주는 음악 서비스’를 구현했다.

이 서비스는 플로가 AI를 활용해 고객이 자주 듣는 음악의 분위기, 가수의 특징, 보컬의 음색 등을 축적한 뒤 고객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추천하는 식이다.



음악플랫폼 플로 개인 추천 홈 화면. /플로

다.

KT 또한 자회사 지니뮤직에서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AI를 통해 ‘인기 차트 추천’을 하거나 ‘최근 감상곡 듣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음성인식으로 특정 단어를 인지하는 ‘AI 음악 태그 기능’을 설정하면 상황에 어울리는 음악을 추천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네이버의 AI 플랫폼 클로바와 제휴해 ‘U+우리집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단단한 균육질 몸매에 가성비로 매력 ‘뿜뿜’

YG의 카톡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1.35리터 가솔린 터보엔진 156마력 첨단 기술로 운전자 피로도 최소화



한국지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주행모습.



한국지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실내.

트레일블레이저 RS 트림에 적용된 1.3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ps)은 5600RPM 도달 시 156마력, 최대토크는 1600~4000 RPM 도달 시 24.1kg·m이다. 호텔을 빠져나와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동안 초반 응답력은 뛰어났다. 고속도로 구간에서도 경쾌한 주행을 이어갔다. 가속페달을 강하게밟지 않았도 빠르게 속도를 끌어올리며 뛰어난 가속력을 보여줬다. 고속 주행시 노면 진동과 소음은 크지 않았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을 적용한 덕분이다.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해 운전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했다. 차선 이탈 경고·유지 보조 시스템은 차량을 도로 안쪽으로 이동시키며 주행을 이어갔다. 다양한 주행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급가속과 급제동을 진행한 후에 주행을 마친 뒤 연비는 11.4km/L이다.

트레일블레이저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이다. 셀토스의 가격이 1965만~2865만원이고, 트레일블레이저는 1995만~2830만원이라는 점에서 내부 공간과 연비, 첨단 기술 적용 등을 비교하면 트레일블레이저가 앞선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車, WRC 몬테카를로 랠리 선두 차지

(월드랠리챔피언십)

총점 35점, 도요타팀 2점차로 앞서



지난 23~26일 2020 WRC 개막전으로 치러진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현대자동차 ‘i20 Coupe WRC’ 경주차가 얼어붙은 도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는 모습.

리팀은 총점 35점으로 도요타팀을 2점 차로 앞서며 드라이버와 제조사 부문 모두 선두에 올라 올해 통합 우승의 전망을 밝혔다.

현대월드랠리팀은 이번 경기에 티에리 누빌과 세バス티앙 로엡, 오트 타낙 등 3명의 선수가 ‘i20 Coupe(쿠페) WRC’ 경주차로 출전했다. 현대 월드랠

/양성운 기자

그러나 이번에 출시한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는 다르다. 경쟁 모델인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셀토스’, 쌍용차 ‘티볼리’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주행 퍼포먼스는 오히려 매력적이다. 한국지엠이 절치부심하고 출시한 트레일블레이저의 매력을 분석하기 위해 시승을 진행했다. 시승은 말리부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1.3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한 RS 트림으로 진행했다.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은 20대 젊은 소비자는 물론 성장 있는 중장년층 소비자가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 전면부는 상하로 나뉘어 위쪽은 얇고 긴 헤드램프를 배치해 날렵한 느낌을 줬고, 아래쪽은 매트한 재질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넓게 배치해 단단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줬다. 측면과 후면은 라인을 넣어 간결하면서도 균육질

느낌이 묻어난다. 실내는 소형 SUV의 저렴한 이미지를 탈피했다. RS 트림의 경우 D컷 스티어링휠과 RS 전용 계기판, 레드 스티치 등으로 실내 디자인에 포인트를 줬다. 특히 최초 차량과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이후 추가 설정없이 무선으로 애플 키플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경쟁 차량들과 달리 별도의 케이블 연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 정책에 따라 추후 적용 예정이다.

주행 성능은 기대 이상이다. 시승 구간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경기도 김포까지 왕복 90km 구간에서 진행됐다.